

이태준 단편소설 속 타자성 인식의 한계

— 「달밤」·「손거부」·「장마」·「패강랭」·「석양」을 중심으로

김진규*

[초 록]

성북동·평양·경주 등을 배경으로 ‘조선적인 것’을 추구한 이태준의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는 1인칭 서술자와 초점화자가 다른 등장인물을 폭력적으로 동일화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학작품 감상에서의 타자성 인식 필요성을 고찰했다. 「달밤」·「손거부」에서 근대적 질서에 속한 ‘나’는 황수건과 손거부의 좌절과 실패에서 ‘조선의 순수함’을 추출하고, 그들의 ‘반근대성’을 ‘음미’한다. 하지만 그들의 근대적 욕망은 자신들을 탈역사화된 시공간에 박제하려는 ‘나’의 서술에 균열을 낸다. 「패강랭」은 ‘조선의 순수함’을 관조하는 것이 어려워진 전시체제를 배경으로 한다. 현은 ‘대평양’(大平壤)이라는 구호 아래 진행된 평양의 근대화 대신 평양의 유적만을 보고, 영월의 실제 삶을 보는 대신 그녀를 ‘조선문화의 고유성의 화신’으로 만들려 한다. 현과 영월 사이의 어긋난 대화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조교수

주제어: 경성, 성북, 평양, 경주, 소설교육, 징후적 읽기, 동일성, 타자성
Kyeongseong, Seongbuk-dong, Pyongyang, Gyeongju, Novel Education,
Symptomatic Reading, Identification, Otherness

는 ‘현’이 자신이 직면한 가치체계의 위기 속에서 타자를 폭력적으로 동일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태평양전쟁 이후 조선어 글쓰기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창작된 「석양」에는 이전 작품에 나타난 최소한의 현실성마저 사라지고, 매현과 타옥의 관계는 철저히 매현의 욕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타자를 자신의 이항대립적 가치체계 속에 배치할 뿐, 그들과의 긴장관계에서 새로운 자기인식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체의 타자성 인식 실패로 읽을 수 있다. 문학교육에서 텍스트의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서술 대상인 ‘타자’를 낯설게 보는 것은 학습자가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이 연구는 성북동·평양·경주 등을 배경으로 ‘조선적인 것’을 추구한 이태준의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1인칭 서술자와 초점화자가 다른 등장인물을 폭력적으로 동일화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학작품 감상에서의 타자성 인식 필요성을 고찰할 것이다. 선행연구는 중등교육과정에서 서술과 관련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 점차 다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브룩스와 워렌의 네 가지 시점 유형을 중심으로 한 소설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¹⁾ 이러한 문제

1) 박기범(2008), 「시점-서술 교육의 반성과 개선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1, 국어교육학회, p. 349; 박기범(2019), 「수능 문항을 통해 본 시점-서술 교육 내용 탐구」, 『청람어문교육』 71, 청람어문교육학회, p. 54.

김동환이 밝혔듯이,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작가 관찰자, 3인칭 전지적 작가’ 등으로 소설의 시점을 나누는 관습은 구인환·구창환의 『문학의 원리』(법문사, 1969)에서 브룩스와 워렌의 『소설의 이해』(Understanding Fiction, 1943)의 시점 분류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김동환(2009), 「소설교육에서의 ‘시점’ 개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 『문학교육학』 30, 한국문학교육학회, p. 406, p. 410]. 선행연구는 7차 교육과정 문학교과서에서의 시점-서술자 이론은 여전

의식 위에서 시점과 초점화 등의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한 소설 읽기 체험 강화 방안이 모색되었다.²⁾ 이러한 소설교육은 서술의 다양성을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포작가가 “의도적으로 부여한 의미” 파악, 다시 말해 “시점 교육의 본질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의도를 헤아리며 읽기’”를 벗어나기 어렵다.³⁾ 독자가 작품 감상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고 윤리적 주체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내포작가의 가치를 경청”하는 자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⁴⁾ 독자가 서술자와 작품 속 ‘타자’인 등장인물 사이

히 브룩스 워렌의 네 가지 시점의 영향 아래에 있음을 밝혔다. 일부 교과서는 네 가지 시점을 기계적으로 수용하고, 네 가지 분류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시점과 서술자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문학교과서도 결국에는 네 가지 시점의 분류로 환원한다는 것이다[이승준(2008),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시점’과 ‘서술자’ 이론에 대한 고찰」, 『우리어문연구』 30, 우리어문학회, pp. 345-352]. 박기범 역시 7차 교육과정에서 표면상으로는 “시점-서술의 의미와 미적 효과를 감상하도록” 하지만 그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교육 현장에서는 브룩스와 워렌의 분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박기범(2008), p. 325].

- 2) 가령 정진석은 ‘시점 바꿔 쓰기’의 활동을 통해 시점의 특성과 기능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정진석(2013), 「소설 시점 교육의 사적 고찰과 개선 방향 연구」, 『어문연구』 41-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 465-467], 박기범은 초점화와 서술의 구분을 통한 소설의 능동적 수용과 대중 서사물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시점-서술의 명확한 이해 도모를 주장하였다[박기범(2008), pp. 350-351].
- 3) 김경애는 H. 포터 애벗의 『서사학 강의』에 제시된 세 가지 읽기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의도를 헤아리며 읽기’는 내포작가가 “의도적으로 부여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징후적 읽기’는 “저자의 무의식이나 저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심리 상태 혹은 인지하지 못한 문화적 조건의 징후로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을 말하며, ‘적용하며 읽기’는 각색하며 읽는 것을 뜻한다. 김경애(2018), 「소설에서 초점화의 이해와 교육 - ‘특별하고도 위대한 연인’, 「타인의 방」, 「유예」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74, 현대문학이론학회, pp. 30-31.
- 4) 이는 오늘날 문학교육에서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의들의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한다. 독자의 역할 강조는 일차적으로 문학 이론과 전문 학술용어를 떠나 독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로 텍스트를 감상하고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김근호(2007), 「소설교육의 실천적 지표에 대한 반성적 고찰 — 이론과

의 관계를 반성적으로 고찰할 때, 서술자의 ‘서술’을 이해가 아닌 해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화자의 서술 자체를 대상화하고, 그 서사가 징후적으로 드러내는 “자기 자신을 낳은 조건”을 파악할 때,⁵⁾ 독자는 능동적으로 소설을 감상할 수 있다.

내포작가의 가치체계 혹은 내포작가가 “의도적으로 부여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타자의 서술 자체를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타자성의 인식’과 결부된다. 작품에서 서술자란 작품 속 등장인물과 자연 등 세계 전반을 사유하고 설명하는 존재이다. “대상과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유하는 나/주체’는 사유의 대상인 ‘객체’나 ‘대상’을 필요로 하고,⁶⁾ 타자성은 이러한 주체와의 분리 속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⁷⁾ 주체는 자신의 존재를 공고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허구적 질서 아래에서 타자를 배제하고 억압한다.⁸⁾ 문학교육에서의 타자성 인식을 다룬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주인공 혹은 서술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소설 속 인물들을 파악하는 ‘주체 중심성’이 타자에 대한 폭력적 동일화를 낳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⁹⁾ 최인자는 타자를 배제하는 주체의

교육과정의 매개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0, 국어교육학회, p. 112], 이는 궁극적으로 ‘사상의 확장을 통한 존재성찰’과 ‘윤리적 주체로서의 바람직한 시민상 형성’으로 이어진다[이준영(2015), 「상호문화성에 기반 한 문학 독서교육, 『한국언어문화학』 제12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 185; 김미영(2008), 「이태준 단편소설의 회화적 특징 연구, 『정신문화연구』 31-4, 한국학중앙연구원, p. 471].

- 5) H. 포터 애벗(2010), 우찬제 외 역, 『서사학강의』, 문학과지성사, pp. 203-204.
- 6) 김점섭(2007), 「주체의 부활 혹은 주체 너머의 주체, 『현대사상』 1, 대구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p. 26.
- 7) 서동주(2000), 『차이와 타자: 현대철학과 비표상적 사유의 모험』, 문학과지성사, pp. 175-177.
- 8) 권택영(1994), 「라캉의 욕망이론,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pp. 17-19.
- 9) 김승환은 한국문학과 교육에는 “자기를 동일화하려는 의지가 강할 뿐 타자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보았고[김승환(2005), 「한국문학교육의 타자성 인식 방법론, 『문학교육학』 17, 한국문학교육학회, p. 132], 오윤주는 소설교육에 나

동일성을 해체하고 타자와의 공존과 소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통일성’을 미적 원리의 구심으로 삼는 소설교육의 ‘독서 관습’”에서 벗어나,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인물의 행위와 의식을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¹⁰⁾ 후속 논의에서는 ‘상식적이고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서술자’의 서술과 거리를 둠으로써 서술자의 가치체계를 도출하고, 그러한 맥락 안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사례를 제시했다.¹¹⁾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화자의 서술에 드러나는 가치체계를 당대의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고, 타자성 인식의 관점에서 그것이 갖는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타자성 인식’을 주로 ‘서술 층위’에서 논의할 것이다.¹²⁾ 서술 층위에서의 타자성 인식이란 서술자가 자신의 이항대립적 가치체계에서 벗어

타나는 “타자의 배제와 고정화”를 문제 삼았으며[오윤주(2019), 「타자 지향의 소설 교육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pp. 996-998], 선주원은 주체 중심주의의 해체를 지향하는 현대 철학의 타자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 독자가 “서사 텍스트에 형상화된 작중인물들을 특정 인물 중심으로 논의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타자성’에 주목할 때, 다층적 삶의 이해와 자기성찰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았다[선주원(2006), 「‘타자’의 서사적 기능과 서사교육의 내용」,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pp. 27-28].

- 10) 최인자(2009), 「타자 지향의 서사 윤리와 소설교육」, 『독서연구』 22, 한국독서학회, pp. 299-300.
- 11) 이 논문에서는 독자의 능동적 독해, 다시 말해 텍스트에 대한 “최대한의 개입”은 “소설 텍스트 자체의 내적 통일성과 유기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식의 독해” 관습에서 벗어나야 하며, ‘믿을 수 없는 화자’의 맥락적 이해를 그러한 독해의 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 논의가 서술자의 신뢰 문제를 어린아이와 왜곡된 가치관을 지닌 인물 등 ‘문제적 화자’를 중심으로 살폈다면, 이 논의는 ‘상식적이고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서술자’의 서술과 거리를 둠으로써 내포작가의 가치규범 자체를 반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인자(2011), pp. 112-113, pp. 115-119, p. 126.
- 12) 이 글에서 사용하는 ‘서술 층위’와 ‘수용 층위’의 구분은 최인자(2009)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해당 논문은 이청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타자 지향의 서사 윤리를 ‘서술(화행)층위’, ‘재현층위’, ‘수용층위’로 나누어 검토했다.

나 타자의 낯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1인칭 서술자 혹은 초점화자가 설정한 자신과 등장인물의 분리란 곧 등장인물을 자신이 설정한 가치 체계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며, ‘타자성’은 곧 등장인물이 그러한 익숙한 이항대립 속에서 벗어나 낯선 존재가 될 때 인식될 수 있다. 소설 속 타자성 인식은 곧 주체의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동일화에서 벗어나 타자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나’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¹³⁾

이태준은 1930년대 단편소설에서 다양한 형식과 주제를 선보였다. 그의 단편소설 모두를 아우르는 특성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으며, 따라서 논의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대상 텍스트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단편집 『달밤』에 나타난 예술적 미의식 논의는 기본적으로 작가가 대상 인물들에게 가지는 연민과 동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달밤」 등이 성취한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 회화성 등이 갖는 의의를 높이 평가한다.¹⁴⁾ 다음으로 ‘일상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이태준의 단편 소설이 현대사회의 일상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으며 그 속에서 권태를 느끼고 일탈하려 하거나 좌절하는 인물을 그렸다는 것에 의의를 부여한다.¹⁵⁾ 이 외에도 이태준 소설에 나타난 민족 의식과 일본 사소설의 전유한 이태준의 자전적 소설의 특성 등이 논의되었다.¹⁶⁾ 이 글의 대상 작품인 「달밤」(1933) · 「손거부」(1935) · 「장

13) 최인자(2009), pp. 281-285.

14) 김미영, 「이태준 단편소설의 회화적 특징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 31권 제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이기인, 「절제된 연민 — 이태준 소설의 미적 성취에 대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2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최은영, 「이태준 서정소설의 특질연구 — 초기 단편집 『달밤』(1934)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 27집,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010.

15) 이현식, 「1930년대 이태준 소설의 특성 연구」, 『상허학보』 18, 상허학회, 2006; 최혜실, 「이태준 단편 소설에 나타나는 일상성(quotidiennete)」, 『국어교육』 7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2.

16) 공종구, 「이태준 지식인 소설에 나타난 민족의식」, 『상허학보』 10호, 상허학회,

마」(1936)·「패강랭」(1938)·「석양」(1942) 등은 성북동·평양·경주와 그곳의 인물들을 통해 ‘조선적인 것’을 강조하는 작품들이다.¹⁷⁾

「달밤」·「손거부」·「장마」 등 성북동을 배경으로 한 이태준의 소설은 소외된 인물들에 대한 서술자의 연민과 우호적 감정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¹⁸⁾ 최근 논의는 성북동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던 공간이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근대적 질서 안에서 안착하고자 하는 ‘향상심’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문제의식을 공유한다.¹⁹⁾ 특히 조형래의 논의는 성북동 사람들에 대한 서술자의 연민이 경성과 성북의 “위계질서”와 “서술자의 특권적 위치”에서 비롯되어 있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²⁰⁾ 「패강랭」과 「석양」은 전시체제 아래에서 자행된 조선의 민족문화 억압에 대한 비판과 사라

2003; 방민호, 「일제말기 이태준 단편소설의 ‘사소설’ 양상」, 『상허학보』 14호, 상허학회, 2005.

17) 각 작품의 발표 서지는 다음과 같다. 「달밤」, 『중앙』, 1933.11.; 「손거부」, 『신동아』, 1935.11.; 「장마」, 『조광』, 1936.10.; 「패강랭」, 『삼천리문학』, 1938.1.; 「석양」, 『국민문학』, 1942.2. 이후 본고에서 인용하는 「달밤」과 「손거부」의 텍스트는 ‘이태준(2015), 『이태준 전집 1 달밤 외』, 소명출판’의 것이고, 「장마」·「패강랭」·「석양」의 텍스트는 ‘이태준(2015), 『이태준 전집 2 둘다리 외』, 소명출판’의 것이다.

18) 오형엽은 「달밤」 등에 순박한 인물에 대한 “인간적 신뢰감과 정”, 현실 속 고통에 대한 따뜻한 연민 등이 잘 드러난다고 보았고[오형엽(1994), 「이태준 단편소설의 스토리 전개 방식」, 『어문논집』 33, 민족어문학회, p. 418], 이기인은 이태준의 1930년대 소설이 불행한 인물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둠으로써 연민이 “보편적이고 긴 여운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이기인(2004), 「절제된 연민 — 이태준 소설의 미적 성취에 대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pp. 55-60, p. 70].

19) 배개화(2019), 「조선의 불균등 발전과 식민지 모더니즘 : 이태준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1930-1937」, 『현대소설연구』 73, 한국현대소설학회, p. 121, p. 138, pp. 141-142; 조형래(2017), 「이태준의 성북동 : 이태준의 단편소설 및 무서록에 나타난 교외와 구석진 곳의 의미에 대하여」,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p. 147, p. 155, p. 165.

20) 조형래(2017), pp. 161-162, p. 169.

저가는 조선의 고유문화에 대한 애상을 드러낸 텍스트로 평가받았다. 「패강령」에 대해서는 텍스트가 환기하는 조선의 특수성이 결국 ‘제국이 조선을 심미화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조선적인 것’의 강조가 결국 제국 일본과 지방 조선의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비판과 그럼에도 현실의 냉혹함과 비애를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항일 텍스트’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²¹⁾ 근대와 전근대의 이항대립 속에서 조선적인 특수성을 찾는 노력이 결국 제국주의의 지배논리로 귀결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석양」 속 경주는 「패강령」 속 평양보다 탈역사성이 더욱 강화된 공간으로 평가받았다.²²⁾ 본고는 이태준의 ‘조선적인 것’ 탐구 자체가 갖는 의의와 한계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인식의 폭력’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술자가 단순히 ‘조선의 순수성’을 담지하는 인물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 이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을 탈역사화된 시공간에 고정시키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1) 이태준의 ‘조선성’이 야나기 등의 조선관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러한 ‘조선적인 것’의 강조가 결국 ‘제국과 지방’의 이항대립으로 수렴한다는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정중현(2008), 「한국/학의 근대성과 로컬리티: 한국 근대소설과 “평양”이라는 로컬리티」, 『사이』 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pp. 116-119; 김병구(2006), 「고전부흥의 기획과 “조선적인 것”의 형성」, 『민족문학사연구』 31, 민족문학사학회, pp. 36-37; 자넷 폴(2008), 한상희 역, 「이태준, 사적영역으로서의 동양」, 『아세아연구』 51-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p. 71. 박진숙은 이태준이 일본의 담론을 넘어서 평양과 경주의 역사적 의미를 성찰했다는 점에서 ‘항일정신’을 담은 텍스트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박진숙(2006), 「식민지 근대의 심상지리와 『문장』과 기행문학의 조선표상」, 『민족문학사연구』 31, 민족문학사연구소, p. 88.

22) 김양선(2003), 「옥시덴탈리즘의 심상지리와 여성(성)의 발명」 『민족문학사연구』 23, 민족문학사학회, pp. 98-99.

2. ‘회고적 진술’을 통한 진실성의 확보와 경성과 성북동의 대비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듯이 성북동은 전근대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근대화가 진행되는 공간이었다.²³⁾ 북악산 아래에 위치한 성북동은 조선시대부터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유흥지였으며, 경성부의 도심이 개발되자 ‘시골스러움’을 즐기는 예술가와 학자들이 모여들어 일종의 ‘문인촌’을 형성한 곳이었다. 성북동은 1930년대 초 까지도 버스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이었지만 1938년에는 ‘호수 1,000호, 인구 6000여 명을 가진 커다란 마을’이 되었다.²⁴⁾ 1920년대부터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기폭제가 된 것은 1936년 ‘성북’의 경성부 편입이었다. 고양시에 속했던 성북동은 1936년 4월 ‘경성부 행정구역 확장안’에서 경성부로 편입되고, 명칭 역시 ‘동’(洞)에서 ‘정’(町)으로 바뀐다.²⁵⁾ 이태준이 성북에서의 삶을 자전적 소설의 형태로 다룬 「달밤」, 「색시」, 「손거부」, 「장마」 등 네 작품은 그가 성북으로 이사 한 해(「달밤」, 1933)부터 성북이 서울로 편입되는 시기(「장마」, 1936) 사이에 걸쳐 있다. 비록 1936년 경성으로 편입되지만 성북은 당시 사람들에게 경성과 대비되는 공간이었고, 이태준의 성북동 단편들은 이러한 경성과 성북을 선명하게 대비한다.

「달밤」과 「손거부」는 1인칭 서술의 회고적 진술을 통해 ‘성북동’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에 대한 ‘나’의 태도와 감정을 ‘진실’한 것

23) 배개화(2019), p. 121; 조형래(2017), p. 165; 야나가와 요스케(2017), 「이태준과 도자기: 일본어 수필 「破片のな話」(파편적인 이야기)와 성북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p. 205.

24) 김영미(2007), 「일제시기 도시문제와 지역주민운동 — 경성지역 성북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근대사회와 문화 3 — 1920·30년대 ‘식민지적 근대’와 한국인의 대응』,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232-233.

25) 「“通”과“洞”을改稱 “町”으로統一」, 『동아일보』, 1936.2.15.

으로 만든다. 여기서는 이 ‘진실’이 다른 인물의 낯섬을 은폐함으로써 이뤄진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달밤」의 1인칭 서술 상황과 텍스트의 기본 구조를 분석해보자.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듯이, 1인칭 서술 상황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나’에 대한 감회를 포함하는 서술자아의 ‘서술’ 부분과 서술자아가 경험자아의 의식에 동화되는 ‘묘사’ 부분이 섞여” 나타난다. ‘서술의 끝에서 두 자아의 시간적 거리가 좁혀져 마침내 서술자아의 감상이 경험자아의 그것이 되는 순간은 ‘나’의 삶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기점’이 된다. 자기 삶의 한 부분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회고적 진술은 일종의 자기 진실성을 드러낸다.²⁶⁾ 이를 염두에 두고 「달밤」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자.

성북동(城北洞)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무어 바깥이 킁킁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싸—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달밤」, p.272)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깐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

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질 일이 있는 것을 생각

26) 박기범(2019), p. 47; 박기범(2008), p. 348; 정연희(2006), pp. 335-336.

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가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달빛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달밤」, p.284)

소설의 시작과 끝에서 두 가지 사실이 반복된다. 소설의 시작은 ‘나’가 사대문에서 시골인 ‘성북동’으로 이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소설의 마지막 장면의 첫 문장은 사대문 안에서 용무를 마치고 “불빛 없는 성북동”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린다. “성북동(城北洞)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 무렵부터 “어제”까지가 소설 전체의 시간적 배경이 된다. 첫 번째 인용문 다음에 성북동 “못난이” 황수건이 등장한다. 마지막 장면, 즉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시간적 거리가 좁혀지는 순간, 황수건이 달밤 아래에서 일본 노래를 흥내 내는 모습이 묘사된다. 황수건의 모습을 묘사하는 마지막 장면을 기점으로 삼음으로써 그에 대한 서술자의 관심과 진실성을 드러낸다. 소설의 처음과 끝에서 공통적으로 ‘나’가 ‘사대문 안’에서 ‘성북동’으로 진입해 황수건을 ‘본다’는 것이 이 텍스트의 핵심 구조이다. 그리고 이 회고적 구조는 작품의 마지막에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서정성의 ‘진실성’, 다시 말해 성북동과 성북동 사람들의 ‘(재)발견’에 대한 서술자의 ‘진정성’으로 수렴한다. 이러한 ‘진실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황수건과 손거부 등이 성북동 그 자체라는 사실과 이들을 향한 ‘나’의 시선에는 보는 자와 대상이 되는 자 사이의 분명한 위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

이로군!” 하였다.

㉞무어 바깥이 킁킁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씩-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㉟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㊱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 주었다.

(…) ㊲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워 주는 것이다.

그런데 ㊳그날밤 황수건이는 열 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퍽 지르는 소리로,

“아, 이 댁이 문안서…….” (『달밤』, pp. 272-273, 강조 인용자. 이후 인용문의 강조는 인용자의 것임.)

작년인데 그때가 봄인지 첫여름인지는 잊었지만 늘 지나다니다지기만 하던 ㊴손 서방이 하루는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이 댁 선생님이 계신가, 원…….” (『손거부』, p. 328)

위의 인용문에서 잘 드러나듯이, 두 소설은 황수건과 손거부가 ‘나’를 찾아오면서 서사가 시작된다(㊲, ㊳). ‘나’가 이사 온 지 대엿새 되는 날 새삼스럽게 성북동을 시골이라고 느낀(㉟, ㊱) 이유는 성북동의 자연 때문이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못난이’ 때문이다(㉞). 시골 ‘못난이’가 ‘우둔하고 천진스러우며 순박’할 수 있는 까닭은 그가 근대화된 시공간에서 벗어나 있는 ‘태고’ 때 사람이기 때문이다(㊲). 선행연구가 지적했듯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들도 ‘이 선생/경성 시내’와 ‘황수건·손거부/성북동’의 위계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고, 성북동은 “이태준에게 있어서 이미 역사적 유효성을 상실했거나 앞으로 소멸될 것임에 틀림없는 고완품 등의 존재를 향수”하는 공간이었다²⁷⁾. 텍스

트 속 위계는 인물들 간의 만남이 용무가 있는 황수건과 손거부가 ‘이 선생’을 찾는 것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지역과 결부된 인물을 일종의 고완품으로 보는 시각은 「석양」에서 ‘타옥’을 “이조백자와 같은 여자”로 표현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간다.

이태준의 옛것에 대한 관심의 근저에는 대상과의 관계를 효용적인 가치로만 판별하는 자본주의적 속물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²⁸⁾ 이태준은 실리 추구의 풍조 속에서 개성이 부재하는 근대의 풍경을 비판하고, 이와 대비되는 ‘취미’를 강조했다. 이태준은 ‘취미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근대화 이전의 가치를 지닌 사물과 ‘사람’에서 발견되는 ‘조선의 순수성’을 고평했고,²⁹⁾ 서양식 집을 짓고 벚꽃을 심는 행동으로 ‘순동양적, 순조선적인 성북동의 순수성이 더럽혀지는 것에 비애’를 느꼈다. 하지만 근대의 불균등성이 근대와 전통의 이분법적 틀 속에 놓이는 순간 그것들의 가치는 시공간을 벗어나 선험적인 의미를 획득한다.³⁰⁾ 자본주의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시공간이

27) 조형래(2017), pp. 161-162. p. 175.

28) 송인화(2003), 『이태준 문학의 근대성』, 국학자료원. p. 62.

29) “특히 이조의 그릇들은 중국이나 일본 내지(內地)의 것들처럼 상품으로 발달되지 않은 것이어서 도공들의 손은 숙련되었으나 마음들은 어린아이처럼 천진하였다. (...) 외국의 공예품들은 너무 지교해서 손톱 자리나 가는 금 하나만 나더라도 벌써 병신이 된다. 비단옷을 입고 수족이 험한 사람처럼 생활의 자취가 남을수록 보기 싫어진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공예품들은 워낙이 순박하게 타고 나서 손때나 음식물에 절수록 아름다워진다.” 이태준(2015), 「고완」, 『무서록 외 — 이태준 전집 5』, 소명출판, pp. 131-132.

“이런 솔직한 말에 나는 감복하였고 내가 조선집을 지음은 이조 건축의 순박, 중후한 맛을 탐냄에 있음이라. 그런 전통을 표현함에는 돈보다 일에 정을 두는 이런 구식 공인들의 손이 아니고는 불가능할 것임으로 오히려 다행이라 여겨 일급(日給)으로 정한 것이다. 이들은 여러모로 시속과는 먼 거리에 뒨진 공인들이었다.” 이태준(2015), 「목수들」, 『무서록 외 — 이태준 전집 5』, 소명출판, p. 120.

30) 근대적 경험이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지칭하는 ‘불균등성’은 ‘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순간, 다시 말해 ‘취미생활’의 대상이 되는 순간, 서술자에게 ‘성북동’과 ‘성북동 사람들’은 ‘나’의 ‘취미’를 만족시키는 죽어있는 ‘사물’이 된다.

나는 이런 문패를 처음 써 볼 뿐 아니라 호구 조사 오는 순사한테 문패막이로 한다는 ㉠그의 말이 우습기도 하고 또 그의 어리석함에 일종의 취미도 느끼었다. (『손거부』, p. 330)

이태준은 성북동의 인물들 역시 취미의 대상으로 삼는다(㉠). 성북동 인물들의 ‘어리석함’과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순수함’은 「달밤」·「색시」·「손거부」에서 ‘나’가 말하려는 핵심이다. 근대화된 사회에 ‘등록’되지 못하고, 시장경제에서 ‘무용’하고 ‘무가치’한 ‘인물’이 보여 주는 태곳적 ‘순박함’과 ‘어리숙함’은 서술자인 ‘나’에게 당시 사회를 비판할 준거점이자 당시 사회가 지켜야 할 ‘조선의 순수성’이 된다.³¹⁾ 하지만 그들은 죽은 물건이 아니라 엄연히 근대사회를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근대화된 공간에 ‘등록’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은 텍스트에 균열을 낸다. 선행연구가 언급했듯이, 성북동 ‘못난이’들은 안정된 직장, 집,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 등 근대적 욕구를 지닌 인물들이었고, 그들의 좌절은 “소의 근대적 행정기관의 제도화와 관련된 세대 변화

대’라는 균질화된 가상적인 ‘경험’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근대’라는 균질한 바탕 없이는 각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근대의 불균등한 경험 역시 논의될 수 없다. 이 작품에서 다루는 텍스트 속 ‘나’는 경성과 성북동의 경험을 근대의 비동시적 경험이 아니라, 단절된 두 공간에서의 이질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이 두 공간의 차이는 지켜야 할 것이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다. 해리 하르투니언(2006), 윤영실 역, 『역사의 요동』, 휴머니스트, pp. 129-133, pp. 234-235.

31) 조선 건물이 “옛날부터 인격과의 교섭이 깊었”지만 이제는 담을 쌓고 페인트 칠을 하는 등의 서양식 건축기법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인격의 정도는 커녕 취미로 보아도 타락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에서도 전통이 당대 현실을 비판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태준(1935.9.), 「집 이야기」, 『삼천리』.

에 봉착”할 때 부각되었다.³²⁾ 여기서는 그러한 인물들의 근대적 욕망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태도에 집중해보고자 한다.

서사에서 타자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익숙한 이항대립적 가치에서 벗어나 ‘타자’를 낯선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인식과 변화를 위해서 화자는 절대적 권위를 내려놓은 채 “타자와의 불일치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인식”하고, 다른 인물의 물음을 이해하고 그것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의 경계가 깨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³³⁾ 「달밤」과 「손거부」의 ‘나’에게 황수건과 손거부는 나의 경계를 깨는 인물이 아니며, 그는 두 사람의 존재론적 욕망에 응답하지 않는다.

우리 집에서는 그까짓 반편과 무얼 대꾸를 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지껄이기가 좋았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지껄이어도 힘이 들지 않고, 또 아무리 오래 지껄이고 나도 웃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뜨해지는 것도 좋았다. (「달밤」, p. 275)

‘나’의 아내에게 황수건과의 대화는 쓸데없는 일이다. 하지만 ‘나’는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와 이야기하면 “기분이 거뜨해”진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그에게 황수건의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사실은 곧 황수건이 근대화된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시골 못난이’라는 사실과 연결된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음미’하는 순박함을 확인함으로써 그는 ‘기분이 거뜨해’진다. 황수건과 손거부는 ‘나’의 세계관과 가치체계 안에서 박제된 인물

32) 배개화(2019), pp. 138-140; 조형래(2017), p. 153

33) 선주원(2004), 「담론 주체의 타자성 읽기와 소설교육 — 김남천의 <경영>과 <맥>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2, 한국문학연구학회, pp. 7-8.

들이다. 여기서 물음이 생긴다. 황수건과 손거부가 그에게 하는 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 황수건이 ‘나’의 집에 찾아와 그와 나누는 첫 말은 “아, 이 댁이 문안서…….”이다(p. 273). 물론 황수건은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나’를 찾았다. 하지만 그에게 ‘나’는 ‘사대문 안에서 이 사 온’ 사람이며, 일본인 시학관과 친해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를 계속 찾는다. 황수건이 나에게 늘어놓는 말은 그의 욕망과 그것의 좌절로 요약된다. 신문사 원배달원이 ‘평생소원’이라고 말하던 그는 배달원 보조 자리에서도 쫓겨나고, 급사로 있던 삼산학교에서 쫓겨난 뒤에도 계속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마지막으로 삼산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실패해 밑천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집을 나가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황수건 등 사회적 약자에 거리를 둔 묘사를 통해 독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평범한 절망과 좌절”에 몰입하게 되고, 이 연민이 “보편적이고 긴 여운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³⁴⁾ 하지만 황수건이 급사 자리에서 쫓겨난 것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근대적인 규율이 몸에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³⁵⁾ 신문 배달 역시 뼈 먹거나 늦은 시간에 배달하고서도 녀살 좋게 만담을 늘어놓다, 다른 집에는 배달 안 할 거냐는 ‘나’의 말에 마지못해 일어섰다. 결국 성북동이 하나의 배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황수건은 보조원 자리에서도 쫓겨난다. 하지만 ‘나’가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불균등성이 아니라, 그들이 근대적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선행연구는 성북동을 배경으로 하는 이태준의 단편이 ‘근대적 공간’에서 벗어나는 인간들에 대한 연민이 나타난다고 보았다.³⁶⁾ 하지

34) 오형엽(1994), p. 60, p. 70.

35) 배개화(2019), p. 138.

36) 최혜실은 작가가 「달밤」의 황수건이 일상생활과 화합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과정을 동정적으로 묘사하며, 바보이기 때문에 생활에서 일탈할 수밖에 없는 인

만 성북동 ‘못난이’의 좌절을 바꿀 수 없는 사실로 본다는 사실은 서술자의 ‘연민’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나’는 황수건의 욕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황수건은 자신이 학교 급사가 되지 못하는 까닭이 새로운 급사가 자신보다 크고 힘도 세기 때문이며, 자신이 힘이 없는 까닭이 우두를 맞아 근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p. 281). ‘나’는 그가 급사가 되지 못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그저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라고 말한다(p. 282). 물론 그는 황수건에게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돈 삼 원을 주지만, 그가 장사에서 이득을 볼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이는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황수건은 ‘나’를 위해 포도를 갖고 왔으나 이내 포도원 사람이 와서 황수건을 잡아간다. 이때 황수건은 처음으로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나’에게 보이고, ‘나’가 대신 포도값을 치르는 사이 몰래 사라진다. 황수건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 다시 말해 황수건의 좌절이 심화된 순간, ‘나’는 ‘황수건의 은근한 순정=흠친 포도’를 ‘음미’하며 먹는다(pp. 283-284). 인물의 고통과 좌절이 ‘나’의 ‘사라져가는 것들을 향한 취미’가 되는 장면은 「손거부」의 아래 장면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나는 이런 문패를 처음 써 볼 뿐 아니라 호구 조사 오는 순사한테 방패막이로 한다는 ㉠그의 말이 우습기도 하고 또 그의 어리석함에 일종의 취미도 느끼었다. (…)

“우린 아직 번지 없답니다.”

“번지가 없대뇨?”

“㉡그게 개천득에다 진 집입죠. 이를테면 국유집죠.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 인제 면에서 나와 번질 때겨 주기 전엔 아직 모릅

물들을 동정함으로써 자신의 일상을 위안하며 동시에 그들에게 흥미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일상에서의 권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최혜실 (1992), p. 256.

니다.”

“글세, 그렇다면 몰라두…… 호준 당신요?”

(…)

“그까짓 거라뇨? 부인은 식구가 아뇨?”

“헤, 쓰실 것 없죠, 그까짓… ㉞에펜네가 사람값에 갑니까, 어디……”

“예- 여보, 그래두 부인이 있길래 저렇게 아들을 낳지 않았소? 부인 성씨가 뭐요, 이름서편?”

“거 뭐, 쓰실 것 없대구요. ㉞이름이 뭔지두 여태껏 이십 년을 살아야 모름죠.” (『손거부』, pp. 330-331.)

손거부는 ‘나’를 찾아와 문패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한다. 위 대화에서 ‘이름’ 없음은 두 가지 층위에서 반복된다. 먼저, 손거부는 문패에 자신과 아들의 이름만을 넣어 달라고 부탁할 뿐 아내의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고 한다. 이십 년 동안 이름을 모르고도 살아온 그는 아내에게 이름을 부여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㉞, ㉞). 손거부가 아내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서도 불편 없이 지냈듯이, 국가도 손거부의 집에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다(㉞).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제는 도심의 토막촌 영세민들을 교외지역이었던 성북에 이주시켰다. 그가 이주민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 역시 개천 독에다 집을 지은 ‘토막민’의 하나였다.³⁷⁾ 국가로부터 ‘이름(번지)’이 붙여지지 않은 자신의 집을 도리어 ‘국유집’이라고 칭하는 손거부의 반어적인 농담(㉞)은 ‘어리석음’과 거리가 멀다. 하지만 ‘나’는 사륙배판(四六倍版)이나 되는 널판때기를 들고 와 호구조사용으로 쓰겠다든 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그의 어리석함에 “일종의 취미”마저 느낀다(㉞). 이러한 ‘나’의 태도는

37) 배개화는 조선에서의 토지 조사 이후 토지소유권이 등장하고, 이후 불법 점유자인 ‘토막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겼고, 1934년 경성의 확장 이후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음을 지적했다. 배개화(2019), p. 137.

황수건이 흠친 포도를 음미하는 ‘나’의 태도와 같다. ‘나’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손거부의 ‘어리석함’이지, 번지를 부여받지 못한 토막에 살면서 문패를 달고 싶어 하는 손거부의 바람이 아니다.

손거부의 ‘문패’는 그의 근대적 욕망을 보여주는 예이다. 우스꽝스러운 문패로 ‘호구 조사 오는 순사에게 방패막이’를 하겠다는 손거부의 말 뒤에는 토막민이 겪어야 했던 불안과 불편이 깃들어 있고, 셋째 만큼은 글을 배워 관리가 되길 바라는 그의 소망은 교육을 통해 자신이 당하는 불편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물론 성북동 사람들을 통해 근대사회를 비판하고 조선성을 사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아니다. 문제는 순수한 조선성의 조건을 근대성과의 대립에서 찾으면서도 그 근거가 되는 근대성을 지워 버린 ‘나’의 태도이다. 손거부의 어리석음에 ‘취미’를 느끼는 ‘나’를 향해, 그는 “알아들으시겠습니까?”라고 묻는다(㉠). 그의 이 물음은 첫아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또 맨머리 바람으로 애비 되는 게 학교에 드나들면 자식의 기를 꺾어 놓는 거란 말씀야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반복된다(p. 334). 국가에 등록된 집을 소유하고, 자식에게 공적 교육을 시켜 국가의 녹을 받게 하려는 욕망을 피력할 때마다, 손거부는 ‘나’에게 “알아들으시겠습니까?”라고 말한다. 조형래는 손거부 등이 “순사(경찰)나 학교 같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작동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호응하려 나름대로 애쓰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조건과 무지/무능’으로 인해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³⁸⁾ 이를 작가의 ‘탁월한 테크닉’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왜 ‘나’가 황수건과 손거부의 ‘무지와 무능’을 지적하지 않았는가 역시 중요한 물음이다. 자신이 학교 급사가 되지 못한 까닭을 우두를 맞아 새 급사보다 힘이 없는 것에서 찾는 황수건과 문패로 ‘번지’를 대신하려는 손거부의 ‘무지’를 일깨워주

38) 조형래(2017), p. 152.

는 대신, ‘나’는 그 무지를 ‘취미’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처럼 ‘나’는 손거부 등의 근대적인 ‘욕망’에 관심을 가지거나 응답하지 않고, 따라서 손거부의 ‘알아들으시겠습니까?’라는 물음은 공허한 외침이 된다. 황수건과 손거부의 ‘어리석은 말’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론적 욕망을 보여준다. 이러한 타자성 인식의 실패는 ‘나’의 ‘옛보기’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달밤」의 회고적 진술은 작품의 마지막 장면, 즉 경성에서 성북으로 돌아온 ‘나’가 일본어 노래의 첫 줄만 되풀이하는 황수건의 모습을 ‘숨어서 바라보는’ 장면을 기점으로 삼는다. 이 장면 바로 앞에서 포도를 훔쳤다는 사실을 들킨 황수건은 ‘나’에게 처음으로 ‘새하얗게 질린’ 얼굴, 다시 말해 ‘나’의 도움에도 사업에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인다. 손거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등장한다.

그 후 얼마 안 있어서다. 아침에 산보삼아 뒷산으로 올라갔더니 마루당 쪽 골짜구니에서 웬 울음소리가 났다. 아이의 울음소리인데 업살하는 것을 보아 매를 맞는 소리였다. 슬금슬금 그쪽으로 가까이 가보니 손 서방이 저희 큰아들 애를 끌고 올라와서 때리는 것이었다.

“이 이놈 새끼…… 애빈 먹을 걸 못 먹구 가리키…… 가리켜 보는데 이놈 새끼 뭐 학교엔 안 가구 진고개루만 싸댕겨…….”

목에 핏대가 일어선 손 서방은 회초리라기보다 몽둥이에 가까운 나무로 아들이 못 달아나게 두 손을 묶어 쥐고 등덜미를 내려패었다. 그러는데 이내 어디선지 태중이라도 만삭에 가까운 듯한 그의 아내가 무거운 걸음을 비칠거리며 달려들었다.

“글세, 왜……아일 짝이려들우? 개가 잘못했수, 어디? 학교서 오지 말랬단 걸 어떡허우 그럼…….”

아들이 이내 어미에게 휩싸자 손 서방은 더 때릴 수가 없어 침을 뱉고 매를 놓았다. (「손거부」, pp. 335-336)

‘나’는 산보 삼아 올라간 뒷산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슬금슬금’ 그쪽으로 다가가 숨어서 손거부를 ‘엿본다.’ 손거부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첫 아이를 매질한다. ‘나’는 손거부의 매질을 중단시키거나 그 이유를 묻는 대신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한 후 그 학교의 다른 사람을 만나 그 이유를 묻는다. 첫 아이가 저능아라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학교에서 쫓아낸 것이었다. ‘나’가 숨어서 관찰하는 두 인물의 모습은 그들이 근대질서 속에서 겪는 좌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엿보기’를 ‘황수건과 손거부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배려해’ “그러한 사정을 짐짓 모른 척”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⁹⁾ 하지만 이러한 배려가 황수건과 손거부의 ‘좌절’에서 ‘순정과 비애’를 느끼려는 ‘나’의 ‘취미’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성북동 못난이들의 ‘고통과 좌절’은 그들이 지닌 ‘순정’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뿐, 경성과 성북 혹은 근대성과 조선성이라는 서술자가 굳게 붙들고 있는 이분법을 깨뜨리지 않는다.

3. ‘대평양(大平壤)’을 향한 욕망과 조선의 고유성 상실로 인한 비애

이 장에서는 「패강령」(1938)을 중심으로 전체주의적 문화정책과 근대화로 인해 훼손당하는 ‘조선의 순수성’이라는 서술자의 관념 속에서 타자가 형상화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서론에서 살폈듯이, 선행연구는 「패강령」속 ‘조선적인 것’의 추구에 대해 ‘군국주의 지배 질서에 대한 저항’과 ‘제국주의 지배 논리로의 함몰’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해왔다. 여기서는 이태준의 ‘조선적인 것’에 대한 인식

39) 조형래(2017), p. 149, p. 152.

이 갖는 반제국주의적 성격 자체가 아니라, 서술자가 평양을 타자화하는 방식이 갖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십여 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현’은 대동강변의 유적지를 돌아다닌다. 작품은 단순히 조선 문화의 고유성을 환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총에 창을 꽂아 든 병정”이 경계하는 비행장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장면을 통해서 ‘전시체제의 살벌한 분위기’를 전달한다.⁴⁰⁾ 여기서는 기존 논의에서 주목하지 않은 평양인들의 현실 인식을 분석해볼 것이다. 현과 운전사의 대화는 두 인물의 엇갈림을 잘 보여준다.

㉠오면서 자동차에서 시가도 가끔 내다보았다.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들이 꽤 많이 늘어섰다. ㉡그중에 한 가지 인상이 깊은 것은 어느 큰 거리 한 뿌다귀에 벽돌 공장도 아닐 테요 감옥도 아닐 터인데 시뻘건 벽돌만으로, 무슨 큰 분묘(墳墓)와 같이 된 건축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현은 운전사에게 물어 보니, 경찰서라고 했다.

또 한 가지 이상하다 생각한 것은, 그림자도 찾을 수 없는, 여자들의 머릿수건이다. 운전사에게 물으니 그는 없어진 이유는 말하지 않고,

㉢“거, 잘 없어졌죠. 인전 평양두 서울과 별루 지지 않습니다.” 하는 매우 자궁하는 말투였다.

현은 평양 여자들의 머릿수건이 보기 좋았었다. 단순하면서도 흰 호접과 같이 살아 보였고, 장미처럼 자연스런 무게로 한 송이 없힌 땀기는, 그들의 악센트 명량한 사투리와 함께 ‘피양내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런 아름다움을 그 고장에 와서도 구경하지 못하는 것은, 평양은 또 한 가지 의미에서 폐허라는 서글픔을 주는 것이었다. (『패강랭』, pp. 115-116.)

유적지를 중심으로 조선의 고유성을 확인하려는 ‘현’에게 근대적

40) 박성란(2007), 「『패강랭』, 1937년 평양의 문화지리」, 『플랫폼』 6, 인천문화재단, pp. 122-123.

도시로서 평양이 갖는 면모는 중요하지 않다. 그는 자동차에서 시가를 ‘가끔’ 바라보며,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이 꽤 많이 늘어섰다’고 가볍게 말한다(㉠). 더욱이 그중에서도 ‘시뻘건 벽돌로 만들어진 큰 무덤 같은 경찰서’가 인상 깊다고 말함으로써 평양의 근대적 면모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는다(㉡). 현은 평양의 도시화와 함께 머릿수건이 사라진 현실에 의문을 품고, 운전사는 머릿수건이 없어진 이유를 말하는 대신 ‘평양이 서울에 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운전자의 ‘평양에 대한 자부심’은 단순히 머릿수건과 같은 평양의 전통 장신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평양의 도시화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운전자는 평양이 유적지와 전통 풍습을 가진 전통적 도시가 아니라 근대화가 진행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평양’에 대한 자부심은 1936년부터 「패강령」이 창작된 1938년까지 평양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던 ‘대평양(大平壤) 도시계획’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정중현의 지적처럼 대륙진출의 병참기지 역할을 했던 평양은 조선의 고유성을 간직한 공간이자 ‘조선의 발전’을 상징하는 곳이었다.⁴¹⁾ 당시 신문은 급격히 확장한 ‘대평양’에 걸맞는 도시계획, 즉 수도·도로포장·교통편 확장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총독부도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비록 총독부의 예산부족으로 평양도시계획은 축소되어 진행되었지만 “대평양의 번영”에 대한 평양 사람들의 열망은 지속적으로 표출되었다.⁴²⁾ 평양인들의 이러한 자기 인식은 「평양을 재음미하자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에서 잘 드러난다. 평양은 ‘역사적 고도이자 문화의 근원지’라는 과거의 영광과 함께 상

41) 정중현(2008), pp. 108-109.

42) 「확장되는 대평양」, 『동아일보』, 1935.7.24; 「빈약한 “대평양” 건설」, 『동아일보』, 1936.3.14; 「건설될 대평양 사십만인구」, 『동아일보』, 1936.6.3; 「“대평양” 도시계획 명춘실시는 확실」, 『동아일보』, 1936.7.4; 「평양도시계획 원만실현은 곤란」, 『동아일보』, 1937.8.4.

공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조선 전체에서 ‘우수한 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발전하는 대평양’인 것이다.⁴³⁾ 경성과의 비교를 통해 평양의 근대적 발전을 확인하려는 운전사의 말은 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타자성 인식에 실패하는 모습은 현과 기생 영월의 대화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엔 하—얀 나비 같은 수건을 썼더니…….”

“참, 수건이 도루 쓰고퍼요.”

㉡“또 평양말을 더 또렷또렷하게 잘했었는데…….”

“손님들이 요샌 서울말을 해야 좋아한답니다.”

“그깃놈들…… 그런데 박군? 어째 평양 와 수건 쓴 걸 볼 수 없나?”

“건 이 김 부회 의원 영감께 여쭙 볼 문젼세. 이런 경세가(經世家)들이 금령을 내렸다네.”

“그렇다드군 참!”

“누가 아나 빌어먹을 자식들…….”

“이 자식들아, 너이야말루 빌어먹을 자식들인게…… 그까짓 수건 쓴 게 보기 좋을 건 똤며 이 평양부내만 해두 일년에 그 수건값허구 당기값이 얼마지 알기나 허나들?”

하고 김이 당당히 허리를 펴고 나앉는다.

㉢“백만 원이면? 문화 가치를 모르는 자식들…….”

“그러니까 너이 글 쓰는 녀석들은 세상을 모르구 산단 말이야.”

㉣“주제넘은 자식…… 조선 여자들이 똤 남용을 해? 예펜네들 모양 좀 내기루? 예펜넌 좀 고와야지.” (『패강랭』, pp. 121-122.)

㉤“흥! 지기 싫여서가 아닐세. 끄러안구 궁대잇짓이나 허구, 유행가 나부랭이나 비명을 허구 그계 기생들이며 그계 놀 줄 아는 사람들인가? 아마 우리 영월인 판슬 못 할 걸세.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할걸?”

43) 「평양을 재음미하자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동아일보』, 1936.6.3.

㉞“아이! 영월 언니가 판슬 어떻게 잘하네요.”

하고 다른 기생이 헬깃 쳐다보며 가로챈다.

㉟“자네두 그래 판슬 허나?”

“잘 못 한답니다.”

㊱“글쎄, 잘 허구 못 허구 간에?”

“어쩍니까? 이런 손님 저런 손님 다 비월 맞추자니까요.”

㊲“건 왜?”

“돈을 벌어야죠.”

㊳“건 그리 벌기만 해 뭘 허누?”

“기생일수록 제 돈이 있어야겠습니까.”

㊴“어째?”

㊵“생각해 보시구려.”

㊶“모르겠는데? 돈 많은 사내한테 가면 되지 않나?”

“돈 많은 사내가 변심 았구 나 하나만 다리고 사나요?”

“그렇가?” (『패강랭』, pp. 125-126)

기존 논의는 일제의 정책에 영합하는 평양 부회 의원이자 실업가인 ‘김’과 조선의 고유한 문화의 상실을 안타까워하는 ‘현’의 갈등을 중심으로 『패강랭』을 살폈다. 이때 ‘영월’은 조선의 고유성을 지키는 인물로 다른 젊은 기생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은 ‘현’이 현실을 살아가는 영월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현은 처음부터 전통적인 옷차림에 “시체기생들처럼 물들이거나 지지거나 하지 않”은 영월을 평양의 독자적인 문화를 체화한 인물로 보고자 한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달리 영월은 다른 젊은 기생들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유성기의 재즈 음악에 맞춰 춤을 잘 춘다(㉞). 영월 역시 ‘현’이 경멸해마지 않는 ‘기생을 불러 놓고서는 댄스를 추는’ 경성의 풍조⁴⁴⁾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다. 평

44) 박성란(2007), pp. 124-125.

양의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머릿수건을 쓰지 않고, 평양말 대신 서울말을 쓰며, 서양식 댄스를 추는 ‘영월(㉠, ㉡)’에게 현은 계속해서 ‘왜?’라고 묻는다(㉢~㉣'''). 거듭되는 질문에 영월은 ‘생각해 보라’라고까지 말한다(㉤). 이러한 엇갈림의 원인은 ‘영월’에 대한 현의 폭력적 인식이다. 현은 수건값이 비싸더라도 ‘조선 여자들은 고와지기 위해’ 그 돈을 지불해야 하고(㉥, ㉦), 영월은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조선의 전통을 지켜야만 한다(㉧). 영월의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나’는 그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결국 영월은 자신이 기생이기 때문에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며, 그 때문에 손님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손거부의 ‘알아듣습니까?’라는 외침은 영월의 ‘생각해 보시구려’라는 말로 바뀌어 등장한다. 「손거부」의 ‘나’처럼 「폐강랭」의 현은 자신이 씩은 틀 안에서만 타자를 보고 있다.

‘현’에게 ‘평양에 대한 자긍심’이 넘쳐나는 운전사는 ‘머릿수건이 없어진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시류에 편승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며, ‘영월’은 현실적 조건에 상관없이 평양의 전통을 고수해야만 하는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현과 운전사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현은 조선의 고유성이 사라지는 평양에서 “폐허라는 서글픔”을 느끼지만, 운전사는 ‘새 빌딩이 늘어선 시가’에서 ‘대평양’의 자긍심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영월에게는 달라진 세태에 맞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은 영월의 처지나 필요를 고려하는 대신 자신의 틀을 벗어나는 그녀를 향해 성마르게 ‘왜’라고 거듭 묻는다. 물론 평양의 발전과 전시체제로의 전환은 일본의 대륙진출과 직접 연결되며, 급격한 도시화는 주택 부족과 생활비 상승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무엇보다도 ‘전시체제 아래에서 독자성을 상실하고 제국의 지방이 되어가고 있는 조선의 냉혹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이 탈역사화한 시공간 속에서 평양

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인식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4. 타자성의 제거를 통한 ‘위로와 안식’과 ‘차이’의 탈역사화

1930년대 전반에 창작된 「달밤」과 「손거부」에는 경성으로 편입되어 가던 성북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두 인물의 근대적 욕망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중일전쟁 이후 창작된 「폐강랭」에서는 평양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단편적으로 그려지고, ‘현’은 성마르게 ‘조선의 고유성’을 확인하려 든다. 이는 이태준이 전 시체제 아래의 현실을 관조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1942년에 창작된 「석양」에서는 현실의 소거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성북동을 소재로 한 「달밤」·「손거부」·「장마」 등의 작품은 공통적으로 경성과의 대비를 통해 성북과 성북 사람들이 나타내는 ‘조선의 순수성’을 재확인한다. 가령 「장마」에서 ‘나’는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성북동 개울가에서 “맑은 물을 보면 으레 ‘빨래하기 좋겠다!’나 느낄 줄 아는, 조선 여성들의 불우한 풍속을 슬퍼한다(p. 53).” 경성행 버스를 타러 가는 ‘나’는 근대화와 거리가 있는 성북에서의 삶이 “어찌 생각하면 걱정거리 많은 이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생활(p. 54)”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다소 비아냥이 섞인 이 말투는 ‘조선중앙일보사’에서 분주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이윤만을 쫓는 중학 동창 강군을 만난 뒤에 “우리 성북동 쪽 산들은 그저 뽕얀 이슬비 속에 잠겨 있다(p. 76)”와 같이 서정적으로 바뀐다. 종로와의 대비 속에서 전근대적인 성

북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재평가되는 것이다. 반면 「석양」에서 ‘경주’와 경성의 대비는 “한때나마 번루(煩累)를 떠나 본다(p. 226)”는 문장으로 간단하게 처리된다. 매현은 ‘번거로운 근심에서 벗어나 단순한 생활과 고독을 누리기’ 위해 경성을 찾았고, “경주에 대한 별로 지식을 준비하지 못”했다(p. 226). 경성에서의 삶과 경주 사람들의 삶 모두 괄호가 쳐져있다. 성북의 개울가 아낙네의 모습은 이제 박물관 “우물돌”을 보고 떠올리는 ‘이날 아침에도 쌀을 씻고 나물을 행군 붉은 손’으로 대체된다. 경주의 유적지와 자연에 빠진 매현에게 “깔리다 만 시가는 경주가 아니라 경주의 부스러기”일 뿐이다(p. 227). 선행연구가 지적했듯이, 매현이 경성에서 만나는 타옥은 매현을 매혹시키는 “현대판 신라의 선녀”로 등장한다.⁴⁵⁾ 그녀는 일본의 고도(古都)인 교토의 동지사 대학을 다니다 왔고, “꽤 세련된 ‘도회’가 풍기는 처녀(p. 229)”인 동시에 “이조백자와 같은 여자(p. 249)”다. 그녀는 ‘우연히’ 매현의 수필집을 들고 있으며, 매현은 높은 식견을 갖춘 “신비한 곡선들의 오름 속에서 튀어나온 요정”을 보며 “이게 정말 현실인가?”라고 스스로 묻는다(p. 235).

정중현의 지적대로 매현에게 “경주와 타옥은 근대의 물신주의에 훼손되지 않은 반근대적 미의 화신”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⁴⁶⁾ 하지만 타옥은 성북동 ‘뭇난이’들이나 평양의 ‘영월’보다 더욱 철저히 타자화된다. 그녀는 매현의 가치체계에 완벽히 부합하는 인물이다. 「달밤」·「손거부」에서 근대적 공간에 속한 ‘나’는 대상인물의 좌절과 실패에서 ‘조선의 순수함’을 추출하고, 그들의 근대적 욕망에 눈을 감았다. 이러한 ‘거리 두기’가 어려워진 「꽤강랭」에서 영월은 ‘조선문화의 고유성의 화신’으로 위치지우려는 현의 시선에서 계속 벗어난다. 하지만 태평양전쟁 이후 조선어 글쓰기마저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창작된 「석

45) 자넷 폴(2007), p. 69.

46) 정중현(2008), p. 118.

양]에서 매현과 타옥의 관계는 철저히 매현의 욕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고완품’이 현실에서 ‘무용’한 동시에 그것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상품’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매현이 타옥을 처음 만난 장소는 ‘고완품점’이고, 그녀는 거기서 고완품을 팔고 있다. 그렇다면 매현에게 타옥이 갖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무엇일까?

매현은 사흘 동안, 타옥은 이조백자와 같은 여자라 생각하였다. 화려한 그릇들은 앉을 자리를 닦는 것이요, 주인이 눈을 다른 데로 줄까 시새우는 것이요 보면 볼수록 소란스럽고 피로해지는 것이나 이조백자는 모두가 그와 판쪽이다. 바쁜 때는 없는 듯 보이지 않으나 고요한 때는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고요히 위로와 안식을 주며 싫어지는 날이 없는 영원의 그릇이다.** (『석양』, p. 249)

“숭고한 영원의 여성”이자 “이조백자와 같은 여자”인 타옥이 갖는 ‘유용성’은 매현에게 “고요히 위로와 안식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현의 피로움과 슬픔은 무엇인가? 작품에서 그것은 경성에서의 ‘번루’(煩累)나 타옥의 ‘절정에 올라 닿은 청춘’에 대비되는 자신의 늙음일 것이다. 기존 논의는 ‘경주와 동일시된 타옥의 상실과 그로 인한 비애가 ‘조선적 특수성’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메타포’로 보았다.⁴⁷⁾ 하지만 ‘조선적 특수성’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은 이미 타옥을 ‘무덤에서 튀어나온 요정’으로 그리는 것에서 나타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애초에 타옥은 매현의 ‘석양’을 대비하는 존재로 설정됐다. 다시 말해 매현이 해변에 나가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비애’에 침잠해 들어가기 위해 그녀는 그를 떠나야 했고, 그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석양을 보며 느끼는 ‘비애’ 그 자체이다. “위

47) 정종현(2008), p. 118.

로와 안식”은 그러한 비애의 아름다움에 취해 ‘경성에서의 번류’를 잊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집 안에서 황수건의 ‘아무 것도 아닌’ 이야기를 들으며 ‘기분이 거뜨해진다’고 말한 ‘나’의 태도의 연장선 위에 있다. 자신의 가치체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느끼는 위안과 안식. 그 ‘위안과 안식’을 위해서 타자의 이질성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이태준의 단편 속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조선의 순수성’을 강박적으로 추구한다. 이러한 ‘조선적인 것’에 대한 추구는 그것을 “과거로부터 소환하여 절대화한 나머지 역사적 현실을 괄호로 묶음으로써 식민제국의 논리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⁴⁸⁾ 성북동과 평양을 배경으로 하는 단편들에서 ‘나’와 ‘현’이 다른 인물들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음을 살폈다. 최소한의 현실적 조건들조차 사라진 상태에서, 매현은 ‘조선적인 것’을 절대화한다. 그 ‘조선적인 것’은 상실되었기에 내게 비애를 주는 것일뿐,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애초에 매현은 경주에 대해 ‘지식’이 없으며, 그 ‘조선적인 것’은 무덤에서 튀어나온 요정과 같은 것이었다.

이태준 단편에 나타난 ‘조선성의 추구’가 체제 비판과 제국주의 지배논리와 친연성 사이에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이 논문이 문제 삼는 것은 자신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굳건히 하기 위해 다른 인물을 타자화하는 주체의 폭력적 태도, 다시 말해 차이를 절대화하는 태도이다. ‘나’와 ‘현’은 성북동과 평양, 그리고 그곳의 인물들이 조선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경성과 성북·평양 사이의 괴리는 지역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근대의 불균등한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북동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이 보여주는 ‘반근대적 속성’은 그가 ‘취미를 가지고

48) 김병구(2006), p. 36.

완상하는’ ‘조선의 순수성’이 된다. 물론 이태준은 전통이 현대적 해석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해야 한다고 보았지만,⁴⁹⁾ 성북동과 ‘못난이’ 등이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현대적 의미를 가질 가능성은 없다. ‘차이’를 본질적인 것으로 환원하는 ‘나’의 태도는 성북동의 개명(改名)에 대한 반응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동(洞)이나 이(里)를 깡그리 정화(町化)시킨 데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불평을 품는다. ㉡그렇게 비즈니스의 능률만 본위로 문화를 통제하는 것은 그릇된 나치스의 수입이다. 더구나 ㉢우리 성북동을 성북정이라 불러 보면 '이주사'라고 불러야 할 어른을 '리상'이라고 남실거리르는 격이다. 이리다가는 몇 해 후에는 이가니 김가니 박가니 정가니 무슨 가나가 모두 어수선스럽다고 ㉣시민의 성명까지도 무슨 방법으로든지 통제할는지도 모른다. (『장마』, p. 60.)

일제는 1936년 경성부 행정구역 확장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이원체제로 운영되던 행정조직을 일원화하였다(㉠). 서술자는 ‘성북동’의 명칭이 ‘성북정’으로 바뀌는 것, 다시 말해 행정 조직의 일원화가 ‘비즈니스의 능률만 본위로 문화를 통제하는 나치스의 수입’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이러한 비판에는 조선의 행정조직을 일본화하는 것에 대한 민족적 반감이 가미되어 있으나 그보다 본질적인 것은 ‘문화적 차이’를 본질화하고 영속화하고자 하는 ‘나’의 욕구이다. 근대의 ‘불균등성’과 ‘비동시성’은 ‘문화적 차이’라는 이름 아래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의 전 세계적 확장이 ‘문화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불균등성’과 ‘비동시성’이

49) “완상이나 소장 욕에 그치지 않고, 미술품으로, 공예품으로 정당한 현대적 해석을 발견해서 고물(古物) 그것이 주검의 먼지를 털고 새로운 미와 새로운 생명의 불사조가 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태준(2015), 『고완품과 생활』, 『무서록의 — 이태준 전집 5』, 소명출판, p. 136.

며 그것이 근대성이 만들어낸 차이들과 파편화의 통합이라는 과제로 이어지는 반면⁵⁰⁾, 이태준에게 국가가 그러한 차이를 통합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며, 문화적 차이는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조선의 행정조직을 일본화하는 것과 국가 내 차이를 지워버리는 파시즘의 행태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며, 그 통제 방식이 창씨개명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은 예리하다. 그러나 파시즘에 대한 ‘나’의 비판이 온전히 성립하기 위해서는 파시즘이 한 국가 안에서 겪는 불균등성을 철폐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1936년 경성부 행정구역 확장안에 따라 고양시 성북동은 경성부 성북정이 된다. 명칭의 변화는 겉으로나마 성북동 주민들이 받는 차별을 은폐했다. 경성으로 편입되면서 명목으로나마 성북동은 시골에서 도시가 되었다. 또한 ‘동’(洞)이 ‘정’(町)이 되면서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 있게 되었다.⁵¹⁾ ‘나’는 행정구역의 일원화에 불만을 가진다. ‘성북동’이 ‘성북정’이 되는 것은 ‘이주사’를 ‘리상’으로 부르는 것처럼 ‘나’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㉔). 그에게 ‘동’(洞)과 ‘정’(町)의 차이는 조선적인 명칭이냐, 일본적인 명칭이냐의 차이일 뿐, 두 명칭이 환기하는 불균등함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하루투니언은 자본주의적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와 시골, 본국과 식민지 간의 불균등한 발전은 필연적이며, 시골에서 관찰된 질적 차이들을 표현한 ‘비동시성’이라는 개념은 파시즘이 사람들을 동원하는 근거가 되었음을 지적했다.⁵²⁾ 「장마」에서 ‘나’가 예리하게 비판한 ‘문화

50) 해리 하르투니언(2006), p. 234.

51) 일제는 큰 거리가 있는 곳에는 ‘통’(通)을, 일본인이 사는 인구 밀집구역에 ‘정’(町)을, 북촌과 경성의 외곽지대의 전통마을에는 ‘동’(洞)을 붙였다. 따라서 ‘정’(町)은 근대적 도시공간으로, ‘동’(洞)은 ‘골’로 불리며 낙후된 마을의 대명사로 여겨졌다. 이이화(2007), 『빼앗긴 들에 부는 근대화 바람 — 한국사 이야기 22』, 한길사, p. 27.

52) 특히 일본에서는 일상에서 경험되는 문화적 이질성은 경제 불균등성을 상기시

를 통제하는 나치스의 방법'은 이 불균등한 발전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그가 예견한 '창씨개명'과 '징병제' 등으로 실천된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이 세워지고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근대성이 만들어낸 차이들과 파편화의 통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물론 이 차이를 동질적 국가 정체성의 강요로 해결하고자 한 파시즘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그 '차이'를 선형적인 특성으로 환원하는 '나'의 태도 역시 타자에 대한 폭력이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성북은 계속해서 '동(洞)'으로 불리며 조선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고, 그 속의 사람들은 근대적인 시공간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못난이'로 남아야 한다. 그들을 성북동이라는 탈역사화된 공간에 위치시켜 '고완품(古翫品)'으로 완상하는 '나'의 시선 속에서 그들의 거둬되는 실패와 좌절은 예술적 속성을 갖춘 것으로 그려지고, 좁혀지지 않은 '나'와 그들의 거리 속에서 "알아들으시겠습니까?"와 같은 그들의 외침은 '나'에게 전달되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5. 나오며

이 글에서 분석한 이태준의 단편에서 성북동·평양·경주 등은 자본주의적 근대를 겪는 경성과 대척점에 놓여 있으며, 이 공간이 환기하는 '조선의 순수성/고유성'은 그곳의 인물을 통해 구현되었다. 주체가 대상 인물을 바라보는 양상과 그들에 대한 관점을 분석할 때, 텍스트를 떠받치고 있는 이분법적 가치체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주체가 텍스트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타자를 자신의 이항대립적 가치체계

키며, '계급, 젠더, 성(sexuality)으로부터 자유롭고, 근대성이 만들어낸 차이들과 파편화를 통합해줄 동질적인 국가 정체성을 주조할 필요가 주창되었다'. 하르투니언(2006), pp. 233-234.

속에 배치하며, 대상과의 긴장을 은폐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타자성 인식의 실패로 읽을 수 있다. 1인칭 서술자와 초점화자가 자신의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타자를 배타적으로 동일화하고 있음을 파악할 때, 텍스트 속 ‘연민과 비애’가 갖는 자기중심성을 인식할 수 있다. 독자는 다른 등장인물의 타자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서술자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익숙한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소설교육에서, 작품에 깔린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서술 대상인 ‘타자’를 낯설게 보는 것은 학습자가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자 료】

- 이태준(2015), 『달밤 외 — 이태준 전집 1』, 소명출판.
_____(2015), 『돌다리 외 — 이태준 전집 2』, 소명출판.
_____(2015), 『무서록 외 — 이태준 전집 5』, 소명출판.

【논 저】

- 공종구(2003), 「이태준 지식인 소설에 나타난 민족의식」, 『상허학보』 10, 상허학회.
권택영(1994), 「라깡의 욕망이론」,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김겸섭(2007), 「주체의 부활 혹은 주체 너머의 주체」, 『현대사상』 1, 대구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김경애(2018), 「소설에서 초점화의 이해와 교육 — 「특별하고도 위대한 연인」, 「타인의 방」, 「유예」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74, 현대문학이론학회.
김근호(2007), 「소설교육의 실천적 지표에 대한 반성적 고찰 — 이론과 교육 과정의 매개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0, 국어교육학회.
김동환(2009), 「소설교육에서의 ‘시점’ 개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 『문학교육학』 30, 한국문학교육학회.
김미영(2008), 「이태준 단편소설의 회화적 특징 연구」, 『정신문화연구』 31-4,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병구(2006), 「고전부흥의 기획과 “조선적인 것”의 형성」, 『민족문화사연구』 31, 민족문화사학회.
김승환(2005), 「한국문학교육의 타자성 인식 방법론」, 『문학교육학』 17, 한국문학교육학회.
김양선(2003), 「옥시덴탈리즘의 심상지리와 여성(성)의 발명」 『민족문화사연구』 23, 민족문화사학회.
김영미(2007), 「일제시기 도시문제와 지역주민운동 — 경성지역 성북동의

-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근대사회와 문화 3 — 1920·30년대 ‘식민지적 근대’와 한국인의 대응』,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기범(2019), 「수능 문항을 통해 본 시점-서술 교육 내용 탐구」, 『청람어문교육』 71, 청람어문교육학회.
- 박기범(2008), 「시점-서술 교육의 반성과 개선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1, 국어교육학회.
- 박성란(2007), 「『패강령』, 1937년 평양의 문화지리」, 『플랫폼』 6, 인천문화재단.
- 박진숙(2006), 「식민지 근대의 심상지리와 『문장』과 기행문학의 조선표상」, 『민족문화사연구』 31, 민족문화사연구소.
- 방민호(2005), 「일제말기 이태준 단편소설의 ‘사소설’ 양상」, 『상허학보』 14, 상허학회.
- 배개화(2019), 「조선의 불균등 발전과 식민지 모더니즘: 이태준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1930-1937」, 『현대소설연구』 73, 한국현대소설학회.
- 서동주(2000), 『차이와 타자: 현대철학과 비표상적 사유의 모험』, 문학과지성사.
- 선주원(2006), 「‘타자’의 서사적 기능과 서사교육의 내용」,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 (2004), 「담론 주체의 타자성 읽기와 소설교육 — 김남천의 <경영>과 <맥>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2, 한국문학연구학회.
- 송인화(2003), 『이태준 문학의 근대성』, 국학자료원.
- 야나가와 요스케(2017), 「이태준과 도자기: 일본어 수필 「破片的な話(파편적인 이야기)」와 성북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 오윤주(2019), 「타자 지향의 소설 교육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오형엽(1994), 「이태준 단편 소설의 스토리 전개 방식」, 『어문논집』 33, 민족어문학회.
- 이기인(2004), 「절제된 연민 — 이태준 소설의 미적 성취에 대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 이승준(2008),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시점’과 ‘서술자’ 이론에 대한 고찰」, 『우리어문연구』 30, 우리어문학회.
- 이이화(2004), 『빼앗긴 들에 부는 근대화 바람 — 한국사 이야기 22』, 한길

사, 2004.

이준영(2015), 「상호문화성에 기반 한 문학 독서교육」, 『한국언어문화학』 제 12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이현식(2006), 「1930년대 이태준 소설의 특성 연구」, 『상허학보』 18, 상허학회.

정래필(2018), 「소설 읽기 교육에서 초점화 이론의 수행적 관점」, 『어문연구』 46-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정연희(2006), 「서술자·시점을 통한 감상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 『어문논집』 53, 민족어문화회.

정종현(2008), 「한국/학의 근대성과 로컬리티: 한국 근대소설과 “평양”이라는 로컬리티」, 『사이』 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정진석(2013), 「소설 시점 교육의 사적 고찰과 개선 방향 연구」, 『어문연구』 41-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_____(2011), 「소설 이해로서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조형래(2017), 「이태준의 성북동: 이태준의 단편소설 및 『무서록』에 나타난 ‘교외’와 ‘구석진 곳’의 의미에 대하여」,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최병우(2003), 「서술자의 신빙성에 관한 연구 —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 『현대소설연구』 19, 한국현대소설학회.

최은영(2010), 「이태준 서정소설의 특질연구 — 초기 단편집 『달밤』(1934)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7,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최인자(2011), 「소설 화자의 맥락적 이해와 윤리적 반응 형성을 위한 소설 교육」, 『독서연구』 25, 한국독서학회.

_____(2009), 「타자 지향의 서사 윤리와 소설교육」, 『독서연구』 22, 한국독서학회.

최혜실(1992), 「이태준 단편소설에 나타나는 일상성(quotidiennete)」, 『국어교육』 7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H. 포터 애벗(2010), 우찬제 외 역, 『서사학강의』, 문학과지성사.

자넷 폴(2008), 한상희 역, 「이태준, 사적영역으로서의 동양」, 『아세아연구』 51-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해리 하르투니언(2006), 윤영실·서정은 역, 『역사의 요동』, 휴머니스트.

원고 접수일: 2020년 1월 10일

심사 완료일: 2020년 1월 23일

게재 확정일: 2020년 2월 12일

ABSTRACT

The Subject's Recognition of Otherness in Lee Tae-joon's
Short Stories and its Limitation:

Focusing on "Moonlit night", "Son Geo-Boo", "Rainy Season",
"Pae Gang Rang" and "Sunset"

Kim, Jin Gyu*

This study, which targets Lee Tae-joon's short stories, considers the need for the subject's recognition of otherness in the appreciation of literary works by analyzing the way the narrator violently identifies other characters. In "Moonlit night" and "Son Geo-Boo", the narrator 'I' extracts 'the purity of Joseon' from the frustrations and failures of Hwang Soo-gun and Son Geo-Boo, and savor their 'anti-modernity.' However, their modern desires crack 'I's' narrative of trying to stuff them in a de-historicized space-time. "Pae Gang Rang" is set in a war system that makes it difficult to meditate on the purity of Joseon. 'Hyun' only sees the remains of Pyongyang, not the modernized aspect of Pyeongyang, which was carried out under the slogan of 'great Pyongyang.' Similarly, instead of seeing Yeongwol's real life, Hyun tries to make her a 'portrait of the uniqueness of Joseon culture.' The miscommunicated dialogue be-

* Adjunct Professor,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ween Hyun and Yeongwol shows that 'Hyun' is violently identifying the other in the crisis of the value system he faces. In "Sunset", written in 1942, even the least bit of reality that existed in previous works disappea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eheon and Taok is strictly in line with Maeheon's desire. It can be read as a failure of the subject's perception of otherness that the narrator only places the other in his binomial value system and does not reach new self-awareness in the tension with them.

In the perspective of literature education, taking a step away from the value system that is taken for granted in the work and recognizing the unfamiliarity of the other will contribute to the laying down of the foundation for learners to communicate with others, away from their egocentric attitudes.